

이사야 7:14하의 번역 — ‘하알마’와 무동사절을 중심으로 —

김유기*

1. 들어가며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기원전 8세기 후반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티그리스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던 아시리아는 디글랏빌레셀 왕의 지휘 아래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시리아 왕 르신은 이스라엘 왕 베가와 힘을 합해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연합 전선을 세웠다.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은 유다를 공격하려 했다. 베그리히(J. Begrich)에 따르면, 이 두 왕이 유다를 침공한 유일한 목적은 유다를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동맹에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¹⁾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유다 사람들은 무척 두려워했다(사 7:2). 이때 여호와께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유다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서 아하스에게 여기에 대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는다. 이사야는 아하스를 책망하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 징조의 내용이 이사야

*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근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부교수. ykim@swu.ac.kr.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0-0074).

1) Joachim Begrich, “Der Syrisch-Ephraimitische Krieg und seine weltpolitischen Zusammenhänge”, *ZDMG* 83 (1929), 220. 베그리히는 이 전쟁을 ‘시리아-에브라임 전쟁’(der Syrisch-Ephraimitische Krieg)이라 부른다.

7:14하반부터 17절까지 이어진다.

이 글에서는 이사야 7:14에 나오는 ‘하알마’와 그 서술어로 쓰인 형용사와 분사의 번역이 본문의 문맥에 비추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²⁾ 먼저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의 번역을 비교해 본 다음 ‘알마(עלמה)’라는 낱말이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다. 아울러 ‘알마’에 결합되어 있는 정관사와 ‘알마’를 서술하는 형용사 ‘하라(הרה)’와 분사 ‘올레뎃(ילדת)’의 기능을 다룰 것이다. 그런 다음 ‘하알마’와 두 서술어의 기능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번역을 제안할 것이다.

이 글은 ‘하알마’와 ‘임마누엘’이 누구 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³⁾ 그러나 낱말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번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의미가 좀 더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사야 7:14하의 한국어 번역

이사야 7:14하반의 히브리어 본문은 아래와 같다.

BHS הנה העלמה הרה וילדת בן וקראת שמו עמנו אל

칠십인역과 불가타에서는 이 구절을 아래와 같이 옮긴다.

LXX	ἰδοὺ ἡ παρθένος ἐν γαστρὶ ἔξει καὶ τέξεται υἱόν καὶ καλέσει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Ἐμμανουὴλ
VUL	ecce virgo concipiet et pariet filium et vocabitis nomen eius Emmanuhel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한국어 번역본들은 아래와 같이 옮긴다.

2) 14절 하반절에는 세 개의 절이 나온다. 처음 두 절은 형용사와 분사로 이루어진 ‘무동사절(無動詞節)’이고 세 번째 절은 서술어가 동사인 ‘동사절’이다.

3) ‘처녀’와 ‘임마누엘’이 누구 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다. 로버츠(J. J. M. Roberts)는 ‘임마누엘’의 정체에 관한 여러 견해 중 이사야의 아들이나 아하스의 아들로 보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보면서 그중에서도 이사야의 아들로 보는 견해를 지지한다. 박형순 또한 두 견해를 소개하지만 ‘임마누엘’을 ‘새로운 이상적 통치자’로 보며 공동체적으로 해석한다. J. J. M. Roberts, *First Isaiah: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15), 119; 박형순, “임마누엘(이사 7,14)의 신원과 신학적 의미에 관한 고찰”, 『가톨릭신학』 33 (2018), 5-39.

- 『개역개정』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
마누엘이라 하리라
- 『공동개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
리라.
- 『새번역』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 『성경』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
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알마(העלמה)’는 명사 ‘알마(עלמה)’에 정관사 ‘하(-ה)’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 낱말을 칠십인역은 “헤 파르테노스(ἡ παρθένος)”로 옮기고 불가타는 “비르고(virgo)”로 옮긴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비교적 최근 개정하여 발행한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은 이 낱말을 하나같이 “처녀”로 옮기고 있다.⁴⁾ 이 세 번역은 개정 이전에도 같은 낱말을 사용했는데, 조금씩 다른 번역 원칙을 가진 세 번역의 전통이 모두 ‘하알마’를 “처녀”로 옮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새번역』 난외주에서는, 여기 나오는 “처녀”라는 번역이 칠십인역을 따른 것이며 히브리어 원문에서 해당 낱말의 의미는 ‘젊은 여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공동개정』 각주 역시 ‘젊은 여인’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2005년에 한국 천주교주교회의에서 발행된 『성경』은 다른 한국어 번역본들과 달리 “젊은 여인”으로 옮기고 있다.

히브리어 형용사 ‘하라(הרה)’와 분사 ‘올레뎃(ולדת)’을 칠십인역은 미래형을 사용하여 “엔 가스트리 핵세이(ἐν γαστρὶ ἔξει)”와 “텍세타이(τέξεται)”로 각각 옮기고 있으며 불가타 역시 미래형을 사용하여 각각 “콘키피엣(concipiet)”과 “파리엣(pariet)”으로 옮기고 있다. 한국어 번역을 보면 『개역개정』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로, 『공동개정』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로, 『새번역』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올레뎃’을 ‘낳다’ 동사의 미래 표현으로 옮기고 있으며, 앞에 나오는 ‘하라’ 또한 ‘잉태하-’에 연결어미 ‘-여’를 결합하여 뒤에 나오는 ‘낳다’와 이어지게 함으로써 사실상 미래 시제로 옮기고 있다. 『공동개정』 또한 ‘잉태하-’에 연결어미 ‘-여’를 결합하고 ‘낳-’에 연결어미 ‘-고’를 결합하여 뒤에 나오는 ‘하리라’라는 미래 시제 동사와 연결하므로,

4) 마 1:23의 그리스어 본문은 사 7:14하의 칠십인역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파르테노스’를 『개역개정』은 ‘처녀’로, 『공동개정』과 『새번역』은 ‘동정녀’로 옮긴다. 마 1:23의 ‘파르테노스’를 초기 한국어 번역본이 어떻게 옮겼는지에 관해서는, 이환진, “마태복음 1:23의 ‘동정녀’와 ‘처녀’라는 용어의 유래에 대하여”, 『성경원문연구』 41 (2017), 75-78을 보라.

히브리어 형용사와 분사를 모두 미래 시제로 옮기고 있다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한국어 번역은 이사야 7:14하반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의 형용사와 분사를 하나같이 칠십인역처럼 미래 시제로 옮기고 있다.

3. ‘하알마’

3.1. ‘하알마’의 여러 번역

영어 성서는 히브리어 ‘하알마’를 “a young woman”(RSV), “the young woman”(NABRE⁵⁾, NJB, NRS, TNK), “this young woman”(NET), “a virgin”(KJV, NAS), “the virgin”(ESV, NAB, NIV, NKJ) 등으로 옮기고 있다. 독일어 성서는 같은 표현을 “die Jungfrau”(EIN), “eine Jungfrau”(LUT), “die junge Frau”(ZUR)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프랑스어 성서는 “la jeune femme”(BFC, TOB), “la jeune fille”(LSG), “la vierge”(NEG) 등으로 옮기고 있다.⁶⁾

앞서 보았듯이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은 ‘하알마’를 “처녀”로 옮기고 있으며 『성경』은 “젊은 여인”으로 옮기고 있다. 서양 언어 번역본들 역시 동정(童貞)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옮긴 경우도 있고 어린 나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옮긴 경우도 있다. 한편, 위의 한국어 번역본들은 모두 히브리어 정관사 ‘하(-הַ)’를 번역하지 않고 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번역본들은 히브리어 정관사를 해당 언어의 부정관사로 옮긴 경우도 있고 정관사나 지시한정사로 옮긴 경우도 있다. 의미와 한정성을 기준으로 한국어와 서양 언어 번역본들에 나오는 ‘하알마’의 번역어를 아래의 <표 1>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 ‘하알마’의 번역: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주요 번역본

	동정	나이
비한정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 KJV, LUT, NAS	『성경』, RSV
한정	EIN, ESV, NAB, NEG, NIV, NKJ	BFC, LSG, NABRE, NET ⁷⁾ , NJB, NRS, TNK, TOB, ZUR

5) NAB(The New American Bible)의 2011년 개정판을 가리킨다.

6)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몇몇 번역본들을 다루고 있는 이환진의 논의를 참고하라. 이환진, 『우리말과 히브리어로 엮어 읽는 이사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15-21.

7) NET(New English Translation)는 이사야가 아하스 왕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하알마’가 현장에 있었다고 보고 지시한정사를 사용하여 ‘이 젊은 여자’(this young woman)로 옮긴다.

3.2. ‘하알마’의 의미와 번역

히브리어 ‘하알마’를 어떻게 옮기면 원문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먼저 히브리어 ‘알마’가 어떤 뜻을 지니는지 알아보고 그 번역어인 칠십인역 ‘파르테노스’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정관사를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논의한다.

3.2.1. ‘알마’의 뜻

‘알마’는 구약 성서에 아홉 번(창 24:43; 출 2:8; 대상 15:20; 시 46:1; 68:26; 잠 30:19; 아 1:3; 6:8; 사 7:14) 나온다. 이 가운데 다섯 번(대상 15:20; 시 46:1; 68:26; 아 1:3; 6:8)은 복수형으로 정관사 없이 나온다. 네 번은 단수형으로 쓰이는데, 그 가운데 한 번(잠 30:19)은 정관사가 없고 이사야 7:14를 포함하여 세 번(창 24:43; 출 2:8; 사 7:14)은 정관사가 붙어 있다. 이 낱말이 정관사 없이 사용되는 잠언 30:19에서 ‘알마’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두 경우에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다. 창세기 24:43에서는 리브가를 가리키며 출애굽기 2:8에서는 미리암으로 추정되는 모세의 누나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사야 7:14의 문맥에서는 지시 대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주요 한국어 번역본은 이 구절들에 나오는 ‘(하)알마’와 그 복수형인 ‘알라못’을 <표 2>와 같이 옮긴다.

<표 2> 주요 한국어 번역본의 ‘(하)알마/알라못’ 번역⁸⁾

	『개역』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	『성경』
창 24:43	청년 여자	젊은 여자	혼기가 찬 여자	처녀	처녀
출 2:8	소녀	소녀	소녀	소녀	처녀
대상 15:20	여청	알라못	알라못	알라못	알라못
시 46:1	알라못	알라못	알라못	알라못	알라못
시 68:25[26]	동녀	처녀들	처녀들	소녀들	처녀들
잠 30:19	여자	여자	젊은 여인	여자	젊은 여자
아 1:3	처녀들	처녀들	아가씨들	아가씨들	젊은 여자들
아 6:8	시녀	시녀	궁녀	궁녀	궁녀
사 7:14	처녀	처녀	처녀	처녀	젊은 여인

이사야 7:14의 ‘하알마’를 하나같이 “처녀”로 번역했던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은 다른 구절들에서는 다른 번역어를 선보이고 있으며,

8) 아홉 곳 모두 『공동』은 『공동개정』과 일치하고 『표준』은 『새번역』과 일치한다.

이 구절의 ‘하알마’를 “젊은 여인”으로 옮겼던 『성경』은 세 곳에서 ‘처녀(들)’로 옮기고 있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은 ‘알마’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홉 곳 가운데 두 곳(대상 15:20; 시 46:1)에서는 음악 용어로 쓰였는데 그 의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본은 히브리어를 음역하고 있다. 아가 6:8의 경우에는 ‘왕비’(מלכות)와 ‘후궁’(פילגשים)이 등장하는 문맥이라 그에 맞추어 “시녀” 또는 “궁녀”라는 번역이 나온다. 다른 경우 번역자들은 이 낱말이 ‘젊은/어린 여자’를 가리킨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알마’가 성인이 아니라고 볼 때에는 “소녀”, “동녀”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비교적 나이 어린 성인이라 볼 때에는 “처녀”, “젊은 여인”, “아가씨”라고 표현한 것이다.

위의 구절들 가운데 가장 풍부한 문맥을 제공하는 창세기 24:43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자신이 우물가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설명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여기서 ‘하알마’는 우물에 물을 길러 와서 친절을 베풀 사람을 가리키는데, 기도하던 종은 당시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리브가로 밝혀진다.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 기도한다. 그 여자가 특정한 행동을 할 경우 그 여자를 여호와께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해 주신 ‘이샤(האשה)’로 알겠다고 한다(창 24:44). 그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실제로 우물가에서 드렸던 기도를 보면 이 여자를 ‘알마’가 아니라 ‘나아라(הנערה)’라고 부른다(창 24:14).⁹⁾ 더 나아가 해설자는 이 여자를 소개하면서 ‘나아라(הנערה)’가 무척 아름다웠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브톨라(בתולה)’라고 밝힌다(창 24:16). 여기서 ‘브톨라’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라는 뜻이 들어 있다고 볼 이유는 없다. 만약 그랬다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이라는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¹⁰⁾ 프라이머-켄스키(T. Frymer-Kensky)도 언급하듯이 ‘브톨라’는 영어에서 흔히 ‘virgin’으로 옮겨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할 만한 나이가 된 여자 아이’를 가리킨다.¹¹⁾ 체밧(M. Tsevat)에 따르면 구약성서에 ‘브

9) 리브가는 이 이야기에서 다섯 번 ‘나아라’로 언급된다(창 24:14, 16, 28, 55, 57). 여기에서 ‘나아라’의 크티브 형태에는 낱말 끝 /ā/ 모음을 표시하는 ‘ה’가 없다. 이런 형태는 이곳 외에 창 34장에 2회, 신 22:15-29에 14회 나타난다. HALOT, “נַעֲרָה”, 707; H. F. Fuhs, “נַעֲרָה na'ar”, TDOT, vol. 9, 479.

10) Richard Niessen, “The Virginity of the עַלְמָה in Isaiah 7:14”, *BSac* 137:546 (1980. 4-6), 146은 이러한 설명이 있다는 점을 들어 ‘브톨라’가 그 자체로 생물학적 동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한편 Alfred von Rohr Sauer, “The Almah Translation in Is. 7:14”, *CTM* 24:8 (1953), 552-553은 16절의 설명을 근거로 43절의 ‘알마’를 ‘처녀(maidens)’로 번역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사람을 가리키더라도 그 사람의 여러 측면 중 한 측면을 강조하는 낱말을 골라 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Tikva Frymer-Kensky, “Virginity in the Bible”, Victor H. Matthews, Bernard M. Levinson,

틀라'가 나오는 51곳 가운데 분명히 'virgin'을 뜻하는 곳은 세 곳(레 21:13-14; 신 22:19; 겔 44:22)이며 다른 여러 곳에서는 동정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¹²⁾ 리브가의 식구들은 아브라함의 종 앞에서 리브가를 가리킬 때 '나아라'라고 한다(창 24:55, 57). 따라서 이 본문에서는 '알마', '나아라', '브틀라', '이샤'가 모두 리브가를 가리키는 낱말로 사용되었다. '이샤'는 보통 한 남자의 아내를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낱말은 모두 어리거나 젊은 여자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몇 안 되는 용례를 바탕으로 '알마'의 뜻을 밝히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자료가 제한적이다 보니 설득력 있는 결론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이 낱말의 남성형인 '엘렘(עלם)'은 구약 성서에 단 두 번(삼상 17:56; 20:22)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중 한 곳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달려가는 것을 본 사울이 부하인 아브넬에게 이 '나아르(הנער)'가 누구냐고 묻는데(삼상 17:55) 아브넬이 모른다고 하자 사울은 아브넬에게 이 '엘렘(עלם)'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한다(삼상 17:56). 그리고 나서 다윗을 만난 사울은 그를 '나아르(הנער)'라고 부른다(삼상 17:58). 다른 곳에서는, 요나단이 다윗과 말하면서 자신을 도와 일하는 아이를 가리킬 때 이 낱말을 사용한다. 요나단은 같은 아이를 두 차례 언급하면서 처음에는 '나아르'라고 했다가(삼상 20:21) 바로 이어서 '엘렘'이라고 한다(삼상 20:22). 나중에 해설자가 이 아이를 언급할 때에는 일관되게 '나아르'라고 한다(삼상 20:35-41). 따라서 '엘렘'이 '나아르'와 구분되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두 곳에만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엘렘'이 히브리어 글말에서 흔히 사용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다.

히브리어에서 '알마'는 남성형인 '엘렘'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비슷한 뜻을 지닌 '나아라'나 '브틀라'에 비해 훨씬 적게 나온다. 따라서 이 낱말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쩌면 '알마'가 저자나 독자에게 외래어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¹³⁾ 주로 창세기 24장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문학적인 역할을 하는 동의어로 쓰이거나 역대상 15:20이나 이사야 46:1처럼 음악 용어로 사용되거나 아가서나 잠언에서 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사야 7:14의 '알마' 역시 예언의 맥락에서 특별한 효과를 위해 사용된

and Tikva Frymer-Kensky, eds., *Gender and Law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JSOTSup 26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79.

12) M. Tsevat, "בְּתוּלָהּ *b'ṭhūlāh*", *TDOT*, vol. 2, 341. 그러나 Tikva Frymer-Kensky, "Virginitiy in the Bible", 80은 이 가운데 레 21:14는 'virgin'으로 번역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하지만 겔 44:22의 경우는 좀 더 모호하다고 한다.

13) C. Dohmen, "עַלְמָה *'almā*", *TDOT*, vol. 11, 160-162는 '알마'가 기본적으로 '외국 여자'를 가리킨다고 본다.

뜻하며 젊은/어린 여자를 가리키는 ‘브톨라’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젊은 여자’(young woman)라는 뜻과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자’(virgin)라는 뜻 사이의 경계는 모호할 수 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회 문화적으로 이 두 뜻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헤아려 볼 수 있다.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브톨라’와 ‘알마’ 모두 두 가지 뜻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¹⁴⁾ 그러므로 특별한 문맥이 아니라면 ‘알마’의 의미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¹⁵⁾

3.2.2. ‘파르테노스’와 ‘처녀’

칠십인역은 이사야 7:14의 ‘알마’를 번역할 때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라는 낱말을 골랐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알마’ 가운데 칠십인역에서 ‘파르테노스’로 번역된 곳은 이곳 외에는 창세기 24:43밖에 없다.¹⁶⁾ 다른 곳에서는 ‘네아니스(νεάνις)’(출 2:8; 시 68:26; 야 1:3; 6:8)와 ‘네오테스(νεότης)’(잠 30:19)로 옮기고 있다.¹⁷⁾ ‘네아니스’는 ‘어린/젊은 여자’(young woman)를 가리키며 히브리어 ‘나아라(נערה)’를 옮길 때 흔히 사용된다. ‘네아니스’는 ‘파르테노스’와 함께 쓰여 동정의 뜻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기도 한다(왕상 1:2).¹⁸⁾ ‘네오테스’는 ‘어림/젊음’(state of being young)이나 ‘어린/젊은 시절’(a period in one's life when one is young)을 뜻하며,¹⁹⁾ 히브리어 ‘느우림(נעורים)’을 옮길 때 흔히 사용된다.

‘파르테노스’는 히브리어 ‘브톨라(בתולה)’를 옮길 때 흔히 사용된다. ‘브톨라’와 마찬가지로 ‘파르테노스’도 일반적으로 젊은 여자를 가리키며 반드시 동정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²⁰⁾ 문맥에 따라 차이는 있

14) Rodrigo de Sousa, “Is the Choice of παρθενος in LXX Isa. 7:14 Theologically Motivated?”, *JSS* 53:2 (2008), 227. Carsten Ziegert, “Die unverheiratete Frau in Jes 7,14: Eine Anfrage an die hebräische Lexikographie”, *ETL* 93:2 (2017), 282-283은 의미 요소 분석을 통해 ‘브톨라’와 ‘알마’ 모두 내재적으로 ‘동정’의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며 두 낱말을 동의어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15) Carsten Ziegert, “Die unverheiratete Frau in Jes 7,14”, 283-284는 ‘브톨라’가 법률적 맥락이나 결혼 혹은 약혼의 성립 또는 파기와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고 ‘알마’는 그 밖의 일반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밝힌다.

16) 불가타 역시 이 두 곳에서만 히브리어 ‘알마’를 ‘비르고(virgo)’로 옮기고 있다.

17) 나머지 두 곳은 음악 용어로 사용된 경우인데 대하 15:20의 ‘알라못’은 ‘알라이모트(αλαμωθ)’로 음역했으며 시 46:1의 ‘알라못’은 어근의 의미를 다른 곳의 ‘알마’와 다르게 보고 ‘크뤼피온(κρυφίων)’으로 옮겼다.

18) T.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Peeters, 2009), 472.

19) *Ibid.*, 473.

20) T.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535; Rodrigo de Sousa, “Is the Choice

지만 ‘파르테노스’가 ‘네아니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²¹⁾ 실제로 칠십인역은 ‘나아라(נערה)’를 ‘파르테노스’로 옮기기도 한다(창 24:14, 16, 55; 34:3[2x]). 이사야서에서 ‘파르테노스’가 사용된 용례(사 7:14; 23:4; 37:22; 47:1; 62:5)를 보면 실제 문맥과 관계없이 히브리어 ‘브톨라’를 기계적으로 ‘파르테노스’로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따라서 이사야 7:14의 ‘파르테노스’가 동정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창세기 24:43에서 ‘알마’를 ‘파르테노스’로 번역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칠십인역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브톨라’(16절)와 ‘나아라’(14, 16, 55절)를 모두 ‘파르테노스’로 옮기고 있다. 따라서 43절의 ‘파르테노스’에 특별히 동정의 의미가 두드러진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²³⁾ 그렇다면 『새번역』이나 『공동개정』의 이사야 7:14 난외주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처녀’라는 번역이 칠십인역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처녀’의 지시적 의미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결혼하지 아니한 성년 여자”이며 둘째는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이다.²⁴⁾ 그런데 ‘처녀’라는 번역어가 두 번째 의미로 읽힐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한국어의 ‘처녀’는 첫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둘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오늘날 입말에서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자를 ‘처녀’라고 부르거나 가리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처녀로 늙다’와 같이 결혼한 적이 있는지가 초점이 되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될 뿐이다. 더구나 마태복음 1:23이 이사야 7:14하반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동정에 초점을 둔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 신약과 구약을 함께 읽는 독자들에게 ‘처녀’는 동정에 초점을 둔 의미로 읽히기 쉽다. 나아가 이사야 7:14의 ‘알마’가 “결혼하지 아니한 성년 여자”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미혼이나 동정의 의미를 지닌

of παρθενος in LXX Isa. 7:14 Theologically Motivated?”, 221-223. 드 수자(R. de Sousa)는 ‘파르테노스’가 반드시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동정이 주요한 의미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21) CEV는 사 7:14의 각주에서, 칠십인역의 번역자가 사 7:14의 ‘파르테노스’를 ‘젊은 여자’라는 뜻으로 사용했는데 마태복음이 ‘처녀’라는 뜻으로 1:23에서 인용했다고 한다.

22) Rodrigo de Sousa, “Is the Choice of παρθενος in LXX Isa. 7:14 Theologically Motivated?”, 212.

23) Ibid., 231. 창 24장에서 ‘나아라’가 ‘파이스(παῖς)’로 번역된 경우(28, 57절)가 있는데 드 수자는 가족의 문맥에서 이 번역어가 쓰인 것으로 본다.

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처녀”, <http://stdict.korean.go.kr> (2020. 3. 4.). 이 밖에도 이 낱말의 비유적인 의미로, “일이나 행동을 처음으로 함”과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임”을 제시하고 있다.

단어 ‘처녀’는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사가 본문의 본래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다른 번역어를 고려해 볼 만하다.

3.2.3. 정관사의 번역

‘하알마’는 ‘알마’에 정관사 ‘하-’가 결합된 형태이다. 한국어에는 관사가 없어서 그에 상응하는 관형사 ‘그’로 옮기는 경우가 많지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정관사를 ‘그’로 옮기는 것이 어색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쓰인 히브리어 정관사를 한국어 관형사 등의 적절한 문법적 기능어로 옮길 필요가 있다.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 언어 번역본들은 히브리어 정관사를 대상어의 정관사로 옮기기도 하고 부정관사로 옮기기도 한다. 게제니우스-카우치-카울리(Gesenius-Kautzsch-Cowley)는 여기서 정관사가 ‘하나의 사람이나 사물을 주어진 상황에서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면서, 이사야 7:14의 ‘하알마’에 사용된 정관사를 영어의 부정관사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²⁵⁾ 한편, 주옹(P. Joüon)은 ‘하알마’가 ‘예언적 선포가 시작될 때’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표현을 프랑스로 ‘une vierge’처럼 부정관사를 사용하여 번역할 수도 있고 ‘la vierge’처럼 정관사를 사용하여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것으로 본다.²⁶⁾

뒤루소(C. H. Drousseau)는 RSV가 1952년에 히브리어 정관사를 영어로 옮기면서 정관사 대신 부정관사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며 1989년에 그 개정판인 NRS가 부정관사를 정관사로 바꾸어 번역함으로써 이 상황을 바로잡았다고 판단한다.²⁷⁾ 물론 영어의 정관사와 히브리어 정관사는 각 언어 사용자들의 인지적 세계의 차이를 반영하여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없다.²⁸⁾ 그러나 여기서 ‘하알마’가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하알마’가 누구인지 문맥에서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여자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막연하게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임마누엘이라 이름 지을 것이라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5) GKC, §126 q-r.

26) Paul Joüon, *Grammaire de l'Ébreu biblique*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6), §137 n, n. 1.

27) Clifford Hubert Drousseau, “Isaiah 7:14b in New Major Christian Bible Translations”, *JBQ* 41:3 (2013), 176.

28) Peter Bekins, “Non-Prototypical Uses of the Definite Article in Biblical Hebrew”, *JSS* 58:2 (2013), 238.

빌트베르거(H. Wildberger)는 7:14하반을 이사야가 자유롭게 쓴 것이 아니라 ‘임신을 알리는 신탁’(annunciation oracles) 형식을 빌려 쓴 것이기 때문에, ‘하알마’가 불특정한 여자나 집단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으며 특정한 여자를 가리킨다고 한다.²⁹⁾ 로버츠(J. J. M. Roberts)도 정관사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개인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는 전통적 ‘알림 형식’(announcement formula)이 사용된 점을 들어, 이 구절에 나오는 ‘하알마’가 특정한 여자라고 주장한다.³⁰⁾ 그러므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와 같이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는 히브리어 정관사를 해당 언어의 정관사로 옮기고 한국어처럼 그러한 문법적 기능어가 없는 언어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관형사 ‘그’로 옮길 필요가 있다.

4. ‘하라’와 ‘올레뎃’

4.1. ‘하라’와 ‘올레뎃’의 여러 번역

한국어 번역본들은 형용사 ‘하라’와 분사 ‘올레뎃’을 하나같이 미래 시제 표현으로 옮긴다. 여러 서양 언어 번역본들 역시 형용사 ‘하라’를 미래형을 옮긴다. 그 예로, “shall conceive”(ESV, KJV, NKJ, RSV), “will conceive”(NIV), “will be with child”(NAS), “wird ein Kind empfangen”(EIN), “deviendra enceinte”(LSG, NEG)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 “is with child”(NJB, NRS, TNK), “ist schwanger”(LUT, ZUR), “est enceinte”(TOB) 등으로 옮기기도 한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is about to conceive”(NET), “va être enceinte”(BFC) 등으로 옮기는 번역본들도 있다. 더 나아가 EIN의 2016년 개정판에서는 현재완료형을 사용해 “hat empfangen”으로 옮긴다.³¹⁾

형용사 ‘하라’를 미래형으로 옮긴 번역본은 뒤따르는 분사 ‘올레뎃’ 또한 미래형으로 번역한다. 이는 시간적 순서로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하라’를 가까운 미래 표현으로 번역한 두 번역본이 ‘올레뎃’을 옮긴 것을 보면, NET는 미래형을 사용하여 “will give birth to a son”으로, BFC는 가까운 미래를

29) Hans Wildberger, *Isaiah 1-12: A Commentary*, Thomas H. Trapp, trans., CC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1), 308.

30) J. J. M. Roberts, *First Isaiah: A Commentary*, 188.

31) 그러나 EIN의 2016년 개정판은 1980년 초판과 마찬가지로 ‘하알마’를 ‘die Jungfrau’로 번역하고 있다.

표현하는 “(va) mettre au monde un fils”로 번역한다. ‘하라’를 현재형으로 옮긴 번역본 가운데에는 ‘올레뎃’을 미래형인 “shall bear a son”(NRS), “will give birth to a son”(NJB), “wird einen Sohn gebären”(LUT) 등으로 옮기는 번역본도 있지만, 현재형인 “sie gebiert einen Sohn”(ZUR), “enfante”(TOB)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is) about to give birth to a son”(TNK) 등으로 옮기는 번역본도 있다. ‘하라’를 현재완료로 옮긴 EIN 2016년 개정판은 ‘올레뎃’을 현재형을 사용해 “sie gebiert einen Sohn”으로 옮긴다.

형용사 ‘하라’와 분사 ‘올레뎃’의 번역 시제를 번역본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하라’와 ‘올레뎃’의 시제 번역 유형

‘올레뎃’ ‘하라’	현재	가까운 미래	미래
현재완료	EIN16		
현재	ZUR, TOB	NABRE ³² , TNK	LUT, NJB, NRS
가까운 미래		BFC	NET
미래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 『성경』, EIN, ESV, KJV, LSG, NAS, NEG, NIV, NKJ, RSV,

4.2. ‘하라’와 ‘올레뎃’의 시제와 번역

이사야 7:14하반의 히브리어 본문을 다시 살펴보자.

BHS הנה העלמה הרה וילדת בן וקראת שמו עמנו אל

‘히네(הנה)’에 이어 주어가 나오고 형용사 ‘하라(הרה)’와 분사 ‘올레뎃(ילדת)’이 서술어로 나온다. 동사가 없이 형용사와 분사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무동사절(無動詞節)이다. 그에 이어서 동사절이 나오는데 이 글에서는 무동사절에 집중한다.

‘히네’는 뒤이어 나오는 내용이 마치 지금 볼 수 있도록 일어나고 있는 것

32) NABRE는 ‘하라’와 ‘올레뎃’을 옮길 때 동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pregnant’는 현재 시제로, ‘about to bear’는 가까운 미래 시제로 볼 수 있다. “the young woman, pregnant and about to bear a son, shall name him Emmanuel”(사 7:14하, NABRE).

처럼 제시하는 기능어이다. ‘히네’가 ‘하라’ 등의 형용사와 함께 사용된 예를 보자.

הַנֶּךְ הָרָה וַיֵּלֶד בֵּן וּקְרָאתָ שְׁמוֹ יִשְׁמָעֵאל (창 16:11)

이제 네가 아이를 가졌다.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 것이다.

הַנְּהֵינָא אֲתַעֲקְרָה וְלֹא יֵלֵד וְהָרִית וַיֵּלֶד בֵּן (삿 13:3)

지금 너는 아이 없는 여자이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렇지만 아이를 가질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הַנֶּךְ הָרָה וַיֵּלֶד בֵּן (삿 13:5, 7)

이제 네가 곧 아이를 가져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16:11에서 하갈은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 따라서 ‘하라’는 현재 임신하고 있다는 의미의 ‘가졌다’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사사기 13:3에서 여호와의 심부름꾼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의 현재 상태에 관해 말한다. 여기서 ‘아이를 갖지 못하다’의 뜻을 갖는 형용사 ‘아카라(עקרה)’는 현재 아이가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어서 아이를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같은 장 5절에 여호와의 심부름꾼의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마노아의 아내가 7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하라’는 미래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³³⁾ 그렇지만 바로 앞에 ‘히네’가 있어서 일반적인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⁴⁾

빌트베르거는 이사야 7:14의 ‘하라’를 현재 시제로 옮길 수도 있고 미래 시제로 옮길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제로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³⁵⁾ 로버츠는 이사야가 가리키는 여자가 그 당시에 이미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히브리어 본문에서 임신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암시하는 점은 없다”.³⁶⁾ 형용사 ‘하라’는 미래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나 가까운 미래 시제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33) J. J. M. Roberts, *First Isaiah: A Commentary*, 117은 서술적으로 사용된 ‘하라’를 현재 시제로 옮길 수 있는 경우로 창 16:11; 38:24-25; 삼상 4:19; 삼하 11:5; 렘 31:8을 들고 두 곳(삿 13:5, 7)은 미래 시제로 옮겨야 하는 곳으로 분류한다.

34) Christo H. J. van der Merwe,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on הָרָה in the Pentateuch, Joshua, Judges, and Ruth”, *Hebrew Studies* 48 (2007), 128.

35) Hans Wildberger, *Isaiah 1-12: A Commentary*, 308.

36) J. J. M. Roberts, *First Isaiah: A Commentary*, 119.

형용사 ‘하라’에 이어서 분사 ‘올레뎃’이 나온다. 게제니우스-카우치-카울리는 분사의 주어 앞에 ‘히네’가 올 때 미래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일어나든가 얼마 있지 않아 반드시 일어날 사건을 언급할 때, 곧 ‘임박한 미래 시제’(futurum instans)에 사용된다는 것이다.³⁷⁾ 판 더르 메르버(C. H. J. van der Merwe)는 ‘히네’가 기본적으로는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대상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좀 더 확장된 의미로는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행동이나 사건을 가리킨다고 한다.³⁸⁾ 더 나아가, 이런 시간적 근접성을 표현할 때 서술어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곧 일어날 것임을 표현하는 분사가 주로 사용된다고 한다.³⁹⁾ 판 더르 메르버, 노데, 크루저(C. H. J. van der Merwe, J. A. Naudé, and J. H. Kroeze) 역시 ‘히네’가 “임박한 행위나 사건”에 관한 평가를 드러내는 경우를 언급한다.⁴⁰⁾ 위키와 오카너(B. K. Waltke and M. O'Connor)는 ‘히네’ 다음에 분사가 와서 미래를 표현하는 예를 들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을 생생하게 표현하거나 다른 사건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⁴¹⁾ 실제로 위키와 오카너가 제시한 아래의 예문들을 보면 이런 경우 분사는 대체로 곧 일어날 일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הנה אנכי עשה דבר בישראל (삼상 3:11)

이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한다.

ואני הנני מביא את-המבול מים על-הארץ (창 6:17)

이제 내가 큰물을 땅 위에 몰아온다.

הנכה ראה בעיניך ומשמ לא תאכל (왕하 7:2)

이제 네가 너의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한다.

위의 예문들에 나오는 분사를 단순히 미래형으로 번역하더라도 뜻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사의 의미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옮기면서 ‘곧’과 같은 부사를 더하거나 현재 시제로

37) GKC, §116 p.

38) Christo H. J. van der Merwe,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on הנה in the Pentateuch, Joshua, Judges, and Ruth”, 127-129, 138-139.

39) Ibid., 128.

40) Christo H. J. van der Merwe, Jacobus A. Naudé, and Jan H.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2nd ed. (London: T&T Clark, 2017), 407.

41)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627-628.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처럼 형용사 ‘하라’와 ‘올레뎃’은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머지않아 일어날 일을 나타낸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모든 한국어 번역본은 이사야 7:14에 나오는 두 낱말을 모두 미래 시제로 옮기고 있다. 서양 언어 번역본들 중 상당수는 ‘하라’를 미래형으로 옮기고 있으며 대부분의 번역본은 ‘올레뎃’을 미래형으로 옮기고 있다. 이에 관해 뒤루소는 ‘하라’를 미래형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며, “is with child”로 옮긴 NRS가 비록 고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현재 시제로 잘 번역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그는 ‘올레뎃’도 ‘아주 가까이 다가온 사건(a very near-term event)’을 나타내므로 “is about to give birth to”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⁴²⁾ 한국어 번역의 경우도 ‘하라’와 ‘올레뎃’을 미래 시제로 옮기는 것보다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도록 옮기는 것이 원문의 뜻을 더 잘 살릴 수 있다.

5. 번역 제안

이사야 7:14하반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징조는 ‘하알마’가 아이를 가졌고 곧 아들을 낳는다는 진술로 시작한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 줄 것이다. 그 아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곧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영건 젖과 꿀을 먹을 때가 되면 유다를 위협하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는 이런 일이 곧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 때까지의 시기를 제시한다.

‘알마’라는 낱말이 동정을 강조하여 쓰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7장의 문맥에서는 어린 나이에 좀 더 초점을 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이 낱말이 가리키는 여자의 동정을 강조하여 번역하면 성적인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점이 징조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⁴³⁾ 더구나 마태복음 1:23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그런 이해가 더 쉽게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야 7장의 맥락에서 기적적인 출생이 징조라 보기는 어렵다. 징조는 단순히 어떤 나이 어린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지닌 ‘임마누엘’로 짓는 것과 관련이 있

42) Clifford Hubert Drousseau, “Isaiah 7:14b in New Major Christian Bible Translations”, 176.

43) 사 7:14에 언급된, 여호와께서 주시겠다는 ‘징조’(מִטְּוָה)가 초자연적인 사건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아이의 출생 자체를 초자연적 징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Alfred von Rohr Sauer, “The Almah Translation in Is. 7:14”, 556-557을 보라.

다.44) 따라서 ‘하알마’를 ‘처녀’보다는 ‘젊은 여자’로 번역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한편 이 문맥에서 ‘젊다’라는 표현은 오늘날 한국 사회와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똑같은 뜻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하알마’를 이사야의 아내로 보는 로버츠는 이 여자의 나이가 십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⁴⁵⁾ 그렇다면 ‘하알마’를 ‘젊은 여자’보다는 ‘어린 여자’로 옮기는 것이 오늘날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원문을 더 잘 살리는 표현일 수 있다. 아울러, 비록 문맥에서 ‘하알마’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화 참여자인 이사야와 아하스가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히브리어 정관사를 살려 한국어 관형사 ‘그’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시간적 근접성을 나타내는 ‘히네’와 연결되어 나오는 형용사 ‘하라’와 분사 ‘올레딧’의 경우를 보자. 주어인 ‘하알마’가 현재 아이를 가졌거나 적어도 곧 가질 상황이라면 형용사 ‘하라’를 그에 맞춰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올레딧’ 역시 머지않아 일어날 일을 가리키므로 생생함을 강조하여 현재형으로 번역하거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일어날 일을 다루고 있는 15-17절과 좀 더 잘 어울릴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사야 7:14하반의 두 무동사절을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어린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머지않아 아들을 낳습니다.’

6. 글을 맺으며

이사야 7:14에 나오는 ‘알마’는 ‘나아라’나 ‘브톨라’처럼 기본적으로 ‘젊거나 어린 여자’를 가리킨다. 나이가 어린 여자는 대체로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당시 유다 사회의 문화적, 법적 규정들이 동정을 강조하다 보니 어린 여자를 가리키는 낱말들이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동정에 초점을 두고 쓰이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7:14의 문맥에서 히브리어 ‘알마’나 그 번역어인 ‘파르테노스’에 동정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어 번역어도 동정보다는 어린 나이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알마’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관해서 아직도 논쟁이

44) Hans Wildberger, *Isaiah 1-12: A Commentary*, 312.

45) J. J. M. Roberts, *First Isaiah: A Commentary*, 119.

있긴 하지만 ‘알마’에 결합된 히브리어 정관사도 적절하게 옮길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 번역본들은 두 무동사절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히네’가 이끄는 히브리어 무동사절의 의미를 살린다면 형용사와 분사로 이루어진 서술어를 현재 시제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주제어>(Keywords)

이사야 7:14, ‘하알마’, ‘브톨라’, ‘파르테노스’, 무동사절.

Isaiah 7:14, *hā‘almāh*, *bētūlāh*, *parthenos*, verbless clauses.

(투고 일자: 2020년 1월 29일, 심사 일자: 2020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3월 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2020. 3. 4.).
- 박형순, “임마누엘(이사 7,14)의 신원과 신학적 의미에 관한 고찰”, 『가톨릭신학』 33 (2018), 5-39.
- 이환진, “마태복음 1:23의 ‘동정녀’와 ‘처녀’라는 용어의 유래에 대하여”, 『성경원문연구』 41 (2017), 75-99.
- 이환진, 『우리말과 히브리어로 엮어 읽는 이사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Begrich, Joachim, “Der Syrisch-Ephraimitische Krieg und seine weltpolitischen Zusammenhänge”,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83 (1929), 213-237.
- Bekins, Peter, “Non-Prototypical Uses of the Definite Article in Biblical Hebrew”, *Journal of Semitic Studies* 58:2 (2013), 225-240.
- De Sousa, Rodrigo, “Is the Choice of $\pi\alpha\rho\theta\epsilon\nu\omicron\varsigma$ in LXX Isa. 7:14 Theologically Motivated?”, *Journal of Semitic Studies* 53:2 (2008), 211-232.
- Durousseau, Clifford Hubert, “Isaiah 7:14b in New Major Christian Bible Translations”, *Jewish Bible Quarterly* 41:3 (2013), 175-180.
- Frymer-Kensky, Tikva, “Virginity in the Bible”, Victor H. Matthews, Bernard M. Levinson, and Tikva Frymer-Kensky, eds., *Gender and Law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JSOTSup 26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79-96.
- GKC = Gesenius, Wilhelm, *Gesenius' Hebrew Grammar*, E. Kautzsch, ed., A. E. Cowley, trans., 2nd ed., Oxford: Clarendon, 1910.
- Joüon, Paul,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6.
- HALOT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eds.,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M. E. J. Richardson, trans. and ed., Study edition, Leiden: Brill, 2001.
- Muraoka, 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Peeters, 2009.
- Niessen, Richard, “The Virginity of the עַלְמָה in Isaiah 7:14”, *Bibliotheca Sacra* 137:546 (1980. 4-6), 133-150.
- Roberts, J. J. M., *First Isaiah: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15.
- TDOT = Botterweck, G. Johannes,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 Willis, et al., trans., 16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74-2018.
- Van der Merwe, Christo H. J.,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on הַרְהַר in the

- Pentateuch, Joshua, Judges, and Ruth”, *Hebrew Studies* 48 (2007), 101-140.
- Van der Merwe, Christo H. J., Naudé, Jacobus A., and Kroeze, Jan H.,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2nd ed., London: T&T Clark, 2017.
- Von Rohr Sauer, Alfred, “The Almah Translation in Is. 7:14”,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24:8 (1953), 551-559.
- Waltke, Bruce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 Wildberger, Hans, *Isaiah 1-12: A Commentary*, Thomas H. Trapp, trans., CC,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1.
- Ziegert, Carsten, “Die unverheiratete Frau in Jes 7,14: Eine Anfrage an die hebräische Lexikographie”,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93:2 (2017), 269-287.

<Abstract>

**The Translation of Isaiah 7:14b:
hā'almāh and the Verbless Clauses**

Yoo-ki Kim
(Seoul Women's University)

The Hebrew term *hā'almāh* in Isaiah 7:14b has been rendered as *cheonyeo* in most Korean translations, which partly corresponds to 'virgin' in English, without taking the definite article *ha-* into account. Moreover, all the Korean versions under review have rendered the adjective *hārāh* and the participle *yōledet* as future tense verbs.

'almāh is attested in the Hebrew Bible nine times, but none of the other instances put focus on 'virginity'. Along with *bētūlāh* and *na'ārāh*, *'almāh* generally refers to a young woman. The LXX translates *'almāh* as *parthenos*, which has been suggested to mean 'virgin' since the LXX almost mechanically renders Hebrew *bētūlāh* as *parthenos*. However, *bētūlāh* does not always focus on virginity and *parthenos* is sometimes chosen to translate *na'ārāh*. In addition, the context of Isaiah 7:14 does not warrant the translation of *'almāh* as *cheonyeo* or 'virgin'. Korean versions also need to translate the Hebrew definite article into the Korean determiner *geu* since the young woman in this verse is likely to be a particular person known to the interlocutors of the reported speech.

The adjective *hārāh* and the participle *yōledet* immediately follows the subject *hā'almāh* as predicates. Korean translations as well as a number of translations in other languages render the adjective and participle as future tense verbs. However, they are preceded by *himmēh*, which presents actions or events in temporal proximity. The context also suggests that the events referred to by these predicates are occurring or will soon come true. The woman is probably pregnant now and will soon give birth to a s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se predicates be rendered using present tense or near future tense verbs. After all, the sign is not about a virgin birth but the birth of a son and naming him Immanuel, which promises protection to King Ahaz and his kingdom.